

불자 세상보기



윤세원 인천대학교수

광역단체장을 비롯하여 모두 3952명을 선출하는 2014년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5월 16일로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가 이날 오후 10시 후보등록 신청접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8962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경쟁률이 2.3대 1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6년의 3.2대 1과 2010년의 2.5대 1보다는 낮은 경쟁률이다.

등락한 후보자들 중에는 전기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여야 공히 공천과정에서 투명하고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공천자를 심사하였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보자의 재산·전과·병역·납세기록을 분석한 결과 3505명(40.1%)이 전과자로 나타났다고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이는 2010년 6.2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전과비율 12.0%보다 현저히 높은 수

치이고, 전과의 내용도 음주·무면허운전은 다반사이고 강제추행, 사기, 특수절도 등 파렴치·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직 적격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사들이 출마를 한 것이다.

아마도 세월호 참사로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후보 검증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어 씁쓸하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변의 사후 수습이 채 되기도 전에 실시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선거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후보자는 물론이고, 각 후보들의 공약도 모르고 표를 찍어야 하는 일명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후보등록이 끝나고 거의 일주일이지나도 65%의 유권자들이 공약은커녕 후보자들의 이름도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 준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운동은 가열될겠지만, 현 시점의 국민적 정서로 보아 가열된 선거 분위기가 밖으로 표출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역풍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둘째는 공약의 부실화와 쓸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거는 가열되기 마련이고, 후보들은 표심을 잡을 수단 있다면, 시류에 편승하고 실현 가능성에 관계없이 현란하고 솔직한 공약을 남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꼭 지켜야 하는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정도의 인식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모든 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유권자를 우롱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는 공약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발해 왔다. 이번에는 아마도 지역개발과 안전에 대한 빈 소리가 요란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부정축재와 파렴치형의 전기기록은 후보의 옥석을 가리는 기본적인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실현 불가능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공약을 한 후보자의 당선은 곧 바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의 경력과 능력 그리

고 제시한 공약을 통하여 당선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일이다. 하지만 관행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선거운동은 정책과 능력의 홍보가 아니라, 후색선전과 상대 후보의 비방, 미사리구로 포장된 허황한 공약, 금품과 향음 제공의 대표행위, 혈연·지연·학연을 통한 표의 구걸 등이 다.

불자들에게 투표는 좋은 국토를 만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의 행위들은 공직을 원하지 않은 일반 불자들도 하지 말아야 할 악구·망언·기어·투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좋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면 그 지자체는 좀 더 정도에 가까워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예토에 가까워질 것이다.

악구·망언·기어·투도를 당선방법으로 행하는 후보는 좋은 후보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운동으로는 공직진출이 불가능한 선거 풍토를 불자들이 정토구현의 서원으로 앞장서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한국 사회를 치유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10여 명이 남아 있다. 이들의 귀환을 기원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은 5월 20일 조계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를 봉행했고, 24일에는 안산시사암연합회가 1달 동안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한 '참회·추모·회합'의 1만배 회향법회가 열렸다.

종단 차원의 49재도 준비 중이다. 천태종은 6월 1일 서울 서초동 관문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49재 및 참회 법회를 봉행하며, 각 종단들도 49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범종단적인 49재와 추모 위령재를 6월 중순경 봉행할 예정이다.

불교계가 열거나 추진 중인 추모행사와 49재는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워낙 대형 참사이고 아직 실종자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수 없었다. 이 같이 '울어줄 공간'을 마련하는 불교계의 추모 행사

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추모 행사와 동시에 불교계는 '남겨진 슬픔'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49재 등 추모행사를 마친 이후 사업 방안 등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1회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벌써 개신교계가 2년 동안의 장기 돌봄 캠페인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불교계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템플스테이는 국민 정서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 발표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성취도에 있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아성찰 등 정신건강 가치 5.45(7점 만점)로 가장 높았으며, 템플스테이 발전의 중요 가치 역시 정신건강이 6.32점(7점 만점)으로 국민들은 템플스테이의 정신적 가치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주목하는 만큼 불교계와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은 산문을 활짝 열고 대중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감사 안아 치유해야 한다.

해명없는 한국연구재단 종교차별 사과하라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전문위원 선임과정서 종교분야 중 불교를 배제 시킨 한국연구재단이 불교학계의 강한 반발에 불교학 전문위원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5월 20일 '(사)한국불교학회 공문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답변'을 통해 종교분야 책임전문위원(CRB) 선임에 학문적 전문성, 형평성 및 공정성을 지닌 학자를 선임할 것이며, 학술연구분야분류표상에 있는 불교학 전문위원(RB)을 선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술연구분야분류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책연구과제 '융합시대 인문학 연구분야분류표 재설계를 통한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약속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앞서 한국종교학회 기독교 10명, 가톨릭 10명, 한국종교 10명의 후보로 구성된 인문학 분야 책임전문위원(CRB) 및 전문위원(RB)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여기서 가톨릭과 기독교는 종교와 철학분야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 불교는 철학분야만 인정받은 것으로 종교편향적 행위란 불교계의 공분을 사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불교학계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 해명과 사과가 없는 점은 아쉬워 했다.

차후에도 한국연구재단측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CRB와 RB 후보 추천시 납득할 만한 선정 기준을 명확히 밝혀 학계와 종교계에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발언대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방안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인 동시에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불교계에서는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편집자주>

소외 어르신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절실



홍정근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

대한민국은 하루 12명의 노인이 스스로 자살하는 나라다. 한 마디로 '고독하고 가난하고 아파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안병 하지 못한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어떻게? 현재, 각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서비스로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건강식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 서비스의 경우 각 복지관별 평균 30~40명의 대상자에게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어 전체 수요에 비해 실질적인 수혜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로인해 공식적 사회복지기관의 노력 외에 더 많은 민간단체,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자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발현하여 자비복지를 지향하는 종교다. 모든 존재가 공동체이며 돌이 아닌 하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사회복지인 것이다. 노인 문제 역시 여기서부터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맑고 향기롭게는 1999년부터 각 지역모임 실정과 형편에 맞게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부문화 캠페인이다.

독거노인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자살률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노인자살예방 실천 서명을 받으며 관심과 모금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불교계가 힘을 합쳐 소외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발원해 본다. 이를 통해 소외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나 여생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품의 고통 해결이 자살률 낮춰



이명희 서울노인복지센터 부관장

9년째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또한 세계 1위다. 사회복지에서는 노인이 '무위(無爲), 고독, 병고, 빈곤' 즉 4고(苦)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울 때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노년기 자살은 오랫동안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주변 가족과 지인의 주의 깊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불교계에서는 신도관리체계나 커뮤니티를 잘 조직해 노년기 변화를 집단적으로 관찰하고 종교·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은 갑작스레 바뀌는 사회적 역할 변화로 기존 개인의 역할을 상실한다. 무위(無爲)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에서 노년기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사찰 자원봉사는 그런 의

미에서 중요하다. 신도를 위한 노년설계프로그램, 일자리사업, 임종준비교육 등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년기에 오는 고독감은 사찰에서 기도·명상을 통해, 그리고 사찰 내 모임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며 해소시킬 수 있다.

자살원인의 가장 큰 이유인 노년기 빈곤은 사찰 차원에서 신도와 자원봉사자 등 인력을 활용해 빈곤노인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체계화 만드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노년기 건강도 중요하다. 신체적 건강의 노화는 심각한 노년기 우울증, 관계망 축소 등 2차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인드라망 관점에서 보면서 노인자살로 귀결되는 사회적 현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개인이 노년의 문제를 직접 공감할 수 있도록 타인의 어려움에 먼저 나서서 실행행동을 해야 한다.

Advertisement for 'On-Heat' (온열복대) health produc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product, a list of certifications (KFA, KETT, EMI, LIG, etc.),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back pain and health. The headline asks 'Do you still suffer from back pain?' and 'The heat of the sun is the cause of illness.'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price of 55,000 won.